



한국 가금협회의

전진적 자제를 바람

주자는 교육이념의 하나일 것이다.

10% 사료값이 오늘 내일 오를 것이라고 했다가 4월이 되면 20~30%가 올라간다고 한다. 사료값이 올라야 한다는 것은 이제 양계업계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올라야 할 원인이야 이미 여러방법으로 양계업자에게 알려져 왔으며 또 실제적인 면에서는 벌써 사료값이 오른 것이나 다름 없라고들 말하고 있다. 닭의사료 섭취량이 20%나 늘어났다고 한다. 즉 그만큼 사료의 질이 낮아진 것이 아닌가고 반문한다.

사료공장의 경우 저질사료의 제조는 단미사료원의 부족으로 불가피하다고 한다. 오히려 그 저질사료 나마 원료절대량이 부족하여 만들기도 힘든다고 얘기 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가 되어도 양계업자들로서는 어폐다 호소할 곳이 없으며 그대로 인정해야될 형편이다.

그런 저질사료라고는 하지만 매달 발표되는 그 권위있고 엄한 배합사료 분석실적표에 나

타나는 규격위반사료는 예나 지금이나 별차이가 없는 기적은 저질사료 운운하는 것이 쑥스러울 정도의 궁금증이 있어 깨롭직한 면이 없는 것도 아니다. (공정규격자체에 보완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조만간에 사료가격이 오르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다. 달걀의 원가가 9원50전이라고 하며 육계의 원가는 190원/kg이라고 한다. 여기에 사료가격이 20~30%올랐을 때에는 달걀은 11⁵⁰원 육계는 218원이 될 것이다. 요사이는 각 시세가 그런데로 수자가 맞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어려울 줄 안다.

이러한 시기에 !

“바둑아 오너라”식의 사고방식보다는 “가자”라는 전진적인 자세가 어느때보다 요청된다. 양계장에 앉아서 달걀, 닭장사가 올때를 기다리는 고자세 혹은 저자세의 판매 보다는 중간 이익을 배제하는 소비자 직접 판매방식을 강구할 때가 왔다. 앞으로 이런 방면에 깊이 간여하고 “유통구조개선”이라는 좋은 단어를 즐겨 쓰지만 말고 실현시킬 단체가 요구된다. 양계업자의 권익옹호는 곧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 신정재 —

<과학사료공사>

“아버지”

“어머니”

“바둑아 바둑아”

“이리오너라”

이는 우리가 국립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배우는 첫 글이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는 개정되리라는 얘기다.

“나”

“너”

“가자” 이와같이 시작된다는 얘기다.

얼른 보기에도 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으나 그 내면에 흐르는 사상은 전연 다르다 할 수 있다. “아버지 어머니”하는 전통적인 윗사람의 개념에서 “나, 너”的 자기 중심적인 관점의 차이, “바둑아 이리 오너라”하는 피동이고 소극적인 행동에서 “가자”는 능동적으로 전진하는 자세를 갖는다.

처음 글을 배우는 어린이에게 큰 정서적인 지주가 되리라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어린이의 교과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단어는 “전진적인 것”과 “개척”이라고 한다.

이는 앉아서 “오너라”식의 안일한 방법으로서는 격동하는 현실을 혜엄쳐 나갈 수 없음을 물론 한결음 더 나아가 문제 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가야 하는 자세(가자)가 필요한 현시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정신자세를 어린 시절부터 심어